



광주 인구 150만 '눈앞'

혁신도시 이전 등 효과
지난해 4481명 늘어
11년 연속 증가세 이어가

광주시의 인구가 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으로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15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다. 전국 7대 광역시 중 인구 150만명 이하는 광주와 울산 뿐이다.

12일 광주시가 발표한 2014년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2013년 말보다 4481명 증가한 149만294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자는 74만551명(49.6%)이고 여자는 75만2397명(50.4%)이며, 내국인은 147만5884명, 외국인인 1만7064명이다.

광주시의 꾸준한 인구 증가세는 자동차와 금형, 가전산업 등 제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혁신도시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광주 남구는 공공기관 이전 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7%인 3675명 증가했다. 남구는 지난 2011년 22만103명이던 인구가 2012년 21만9385명, 2013년 21만7445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으나,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이후 올 1월말 현재 22만

248명을 기록중이다. 광산구도 신규 아파트의 분양 효과로 전년에 비해 1.4%인 5461명이 늘었다.

반면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효과에도 전년대비 2199명이 줄어들면서 인구 10만명대 붕괴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다. 상업지역이 많은 서구도 거주인구의 감소현상으로 4740명이나 줄었다.

자치구별 인구는 동구가 10만1833명(6.8%), 서구 31만1985명(20.9%), 남구 22만1120명(14.8%), 북구 45만1936명(30.3%), 광산구 40만6074명(27.2%)이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이른바 '과대 동'은 광산구 수원동으로 7만7680명이었으며, 과소 동은 동곡동으로 221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6만90명(17.6%)으로 가장 많고, 30대 22만7820명(15.4%), 50대 21만2836명(14.4%), 10대 20만767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14세까지 유소년 인구는 16.1%인 23만7255명이었으며,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 인구는 73.1%인 107만8807명,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8%인 15만9822명이었다.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은 300명으로 남자는 31명(10.3%), 여자는 269명(89.7%)이었으며, 90세 이상 노인도 3953명으로 4000명에 다가섰다. 외국인은 지난해보다 1507(9.7%)명 늘어난 1만7064명으로 중국 출신이 가장 많은 6292명(36.9%)이고, 베트남 출신 2846명(16.7%), 필리핀 출신 982명(5.7%) 순이었다.

한편 광주시 인구는 1964년 34만3193명에서 50년 동안 4.3배 늘었으며, 성비는 1990년까지 남자인구가 많다가 1991년을 기점으로 역전돼 2014년에는 여자가 1만1846명이나 많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시접수 > 2.16 ~ 22(월)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시접수 > 2.9 ~ 23(월) 062-605-1115

영암·해남 기업도시 10년 넘도록 '지지부진'

전국 4개 기업도시 중 공정 가장 늦어... 외부자본 수혈 시급
정부,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화·담보대출 전남도 요구 외면

영암·해남에 조성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사업(이하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공정률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사업자들의 자금이 지나치게 적거나 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외부 자본 수혈'이 시급하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매립된 공유수면의 토지화와 토지 보증을 통한 금융기관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개정을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난항이 예상된다. 부분 준공 등을 통해 한 제도 하에서도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불공하고 전남도가 '제도 타령'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12일 "최근 국토교통부를 찾아 정부부처 관계자와 서남해안 기업도시와 관련 공유수면 토지화, 그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나 부정적인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은 지금까지의 지원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외부 민간투자 유치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지의 대부분이 공유수면인 서남해안 기업도시를 제외한 전국 3곳의 기업도시에는 이미 준공됐거나 상당부분이 진척된 상태다.

중주 기업도시에는 지난 2012년 7월 준공됐고, 원주 기업도시에는 오는 2017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태안 기업도시의 경우 전체 부지의 5분의1 이상이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남해안 기업도시의 경우 구성지구의 공정률이 7.3%에 불과하고,

삼호지구는 지난해 9월 45층 골프장이 착공됐을 뿐이다. 삼호지구는 서류상 존재하는 카보 주식회사가 여전히 사업자로, F1경주장 주변에 최근 고성능자동차핵심기술연구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착공되는 등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삼호지구의 경우 중국이나 미국 등의 자본이 투자제안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전남도는 변수가 많다고 보고 비공개로 이들 자본과 협상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경제계 등의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복나눔 "한 벌에 1000원" 광주시 남구청 1층 로비에서 13일 개최되는 '2015년 사랑의 교복나눔 아나바다 장터'를 하루 앞두고 구청 직원들이 12일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관내 33개 중·고등학교에 교복 모집 협조 공문을 보내 졸업생 등에게서 받은 교복을 모아 1000~3000원에 판매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완구 인준 16일로 연기

野 우윤근 원내대표 "처리 합의 아닌 본회의만 순연"

여야는 12일 예정됐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일단 본회의 일정만 연기하고 국민과 당내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임명동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4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양측 원내대표 및 부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열지 않고 16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완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16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다. 본회의만 순연했다"며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여야 합의로 16일 오후로 연기했다. 우리 지도부도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번뿐만 아니라 19대 국회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인준 처리에 대해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참석해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했고, 어느 한 당이 출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안건은 그대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은 16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안 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6일까지 국민과 당의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 당일 본회의 참석 여부, 임명동의안 처리 여부 등은 의총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원룸 비밀번호 노출 심각 ▶6면

멀티플렉스 영화관 甲질 ▶10면

공장매각

도장·도금 공장 매각 및 임대
공장부지 18,549평·건물 3,000평

소재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예리리 1241-74
현황 아연도금 연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1메가)
토지면적 61,321㎡(18,549평)
공장면적 10,000㎡(3,025평) (아연도금 공장 1,000평, 도장공장 2,000평)
물류면적 51,674㎡(15,631평)
보유설비 산처리/도금 설비, 환경설비, 표면처리 설비, 크레인 설비, 전기 950kw

매각 또는 임대 협의 가능
담당자 010-6318-9611

